

# ἩΝΘΩΝΡΟ ΙΜΡΟΝΡΕ 박사Æ 창세기Æ ḲD회Æ 야곱의 축복Æ 요셉의 아들들Æ 야곱과 요셉의 죽음 Æ 창세기 ḲDÁDĆ

© 2024 Kenneth Mathew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창세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Kenneth Mathews입니다. 이것은 25회기, 야곱의 축복, 요셉의 아들들, 야곱과 요셉의 죽음, 창세기 48-50장입니다.

오늘은 25과, 야곱의 축복과 야곱의 장사, 그리고 기대되는 요셉의 장사, 48장부터 50장입니다.

따라서 이 세 장은 이제 이 책 전체의 장엄한 결론을 가져옵니다. 지난번에 나는 46장과 47장이 어떻게 48장, 49장, 50장과 합쳐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의 결론인 46장과 47장이라는 두 가지 결론을 나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의 토론인 48, 49, 50이 있는데, 여기에는 요셉과 야곱이 포함됩니다. 이 두 명의 주요 인물을 책 전체의 결론으로 통합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요셉 이야기에서 야곱이 매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48~50년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자신의 이야기에서도 그는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이야기를 함께 보면 이 세 인물이 이야기의 주요 인물이다. 그는 요셉과 야곱을 갖게 될 것이며, 남은 아들들 중에서 특히 유다가 두드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책이 해석되고 이해되는 방식에 대한 적절한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발견한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가족을 축복하는 것에 대한 강조는 1장 26절부터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즉, 남자와 여자를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도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내가 과거에 말했듯이, 그는 매우 개인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그 자신의 본성과 성격으로 인해 창조 질서와의 관계, 특히 인간 가족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열심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간 가족을 위한 축복을 계획하셨습니다.

듯이 인간 가족이 이러한 관계를 맺도록 의도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손을 낳는다는 것은 번성하는 것이고, 그런 다음 전체 창조물에 대한 권위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초점이 땅 곧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의 땅의 영역은 인간 가족을 통해 표현되므로 우리는 그것을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에서 새롭게 표현됩니다. 이 약속을 처음 듣는 12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와 관계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는 땅을 얻게 될 것이고, 너는 후손이 많고 많은 강대한 나라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창세기 이야기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라는 주제를 봅니다. 이 장들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창세기 주제의 세 가지 요소를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오경, 창세기, 신명기 전체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만드실 때 권위 있는 말씀으로 창조물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음을 더욱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동기는 성경의 더 넓은 관점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셨으며, 하나님이 이 관계에 열심이셨고 관계를 보장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경을 읽을 때, 시내산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되어 애굽에서 성공적으로 인도된 백성에게 어떻게 알려 주셨는지 묵상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그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선 세대는 모세가 신명기에서 마지막으로 지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7장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을 볼 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듣거나 그 구절을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에 대해 읽고 있어요.

그러므로 7장을 보면 7절을 읽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고 너희는 모든 족속 중에 가장 적음이라.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더 매력적이거나 그분의 특별한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8절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사 종 되었던 땅에서 속량하시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을 지키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집트 왕 바로의 힘.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다음 12절로 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밝히신 이 율법을 삼가 지켜 행하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수를 늘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사랑과 축복을 통해 인류 가족을 향한 그분의 축복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지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을 통해, 이 신흥 국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통해 다가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적인 사랑으로 이 특별한 가족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용의 목적과 계획이 어떻게 많은 장애물에 부딪혔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와 자비로 이스라엘 내부와 조상들 내부에 가해진 위협, 즉 그들의 부도덕과 불순종의 행위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불충성이나 조상 밖에서, 이스라엘 밖에서 오는 위협도 있었습니다.

국가나 군사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의 부도덕과 사악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종류의 위협을 안팎으로 선택적인 사랑의 능력으로 극복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소 강력한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주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보존하기 위해 행해졌습니다. 그분께서 한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가지시려고 출애굽기 19장에서는 그들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받게 될 시내산 기슭에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방법으로 그분은 온 세상에 이 큰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셉의 이야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는 45장, 46장, 47장에서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끔찍한 기근으로부터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실 수단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위대하고 엄청난 일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대 근동에서 애굽으로 내려온 모든 민족의 구원자가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그들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곡식을 받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제 48장과 49장부터 28절까지에서 우리가 발견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것을 야곱의 축복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는 축복은 바로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파라오가 그에게 이집트인 아내를 준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41장 50절부터 52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두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리고 49장 1절부터 28절까지 보면 그의 12아들에 대한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축복이 될 것입니다. 48장에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요셉은 이것이 야곱의 시대의 마지막임을 인식합니다.

관습에 따라 한 가족의 가장은 아들들에게 축복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축복을 받고 싶었지만 축복을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 아들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포함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그의 두 아들도 받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이 야곱의 손자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가 이 점에 대해 염려한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직계 후손은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야곱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에게는 이집트인 어머니가 있었고 의심할 바 없이 이집트의 관습에 따라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요셉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한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다가갔을 때 야곱이 3절에서 요셉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듣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타나신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28장 밤 이상 중에 야곱이 그 본토를 떠나 밧단아람으로 향할 때에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이시라 형 에서는 그를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는 베엘로 알려진 곳의 옛 이름을 알려줍니다.

루즈입니다.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사 거기서 내게 복을 주시느니라 이제 우리는 실제로 약속된 축복의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에게 축복하며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여 네 수를 늘리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나는 너희를 사람들의 공동체로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야곱의 출산이 될 것이며, 확실히 그는 열두 아들의 아버지가 된 이후로 많은 민족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네게 주어 네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제 오래전 야곱이 그 땅에서 도망하던 때에 야곱의 기억 속에 있던 모든 것이 그러하였느니라. 이제 그는 그 땅에 없습니다.

그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다가 결국 그 땅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여기에 이 큰 기근이 있으니, 그는 미래를 확보하고, 이 기근 가운데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그 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땅에 있지 않고 마음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비록 그가 땅에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의 가족을 그 땅으로 회복시키실 예정이었습니다. 영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그러므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진 약속의 맥락에서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좋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입양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에 대한 담화의 범위는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것은 그가 5절에서 이 두 사람이 애굽에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여기 오기 전에는 이 두 사람이 내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보세요, 그게 입양 언어입니다. 그들은 요셉과 같은 신분을 갖게 될 것이며, 야곱의 후손으로서 축복을 받고 약속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자신의 처음 태어난 두 아들, 르우벤과 시므온은 내 아들과 비교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아, 에브라임과 므낫세 외에 다른 아이들은 네 것이 될 것이요, 이들은 내 것이니라. 그들은 동일한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내가 밧단에서 슬픔에 잠겨 돌아오던 중에 라헬이 가나안 땅에서 죽었습니다.

자, 그것은 35장 16절부터 19절까지인데, 그는 라헬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왜 Rachel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요셉이 라헬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이제 8절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야곱을 그의 대체 이름인 이스라엘로 지칭하는 일련의 언급일 것입니다. 그리고 32장에서 그가 여호와와 사자와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는데, 여호와와 사자, 즉 주님 자신에 의해 그의 이름이 지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노력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이런 씨름이 있었고, 야곱은 주님의 축복을 받았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8절부터 12절까지 시작하는 이 대화에서 이스라엘을 자주 언급하는 목적은 우리가 양자 됨에 대해 발견하는 강조점일 것입니다.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사실상 이스라엘인 것처럼, 야곱이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독자들에게 이 두 사람의 지위를 확신시켜 줍니다.

그래서 8절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이요, 그다음에 9절에서 이스라엘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스라엘의 눈이요, 11절에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1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무릎을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눈, 즉 야곱의 눈이 약해지고 눈멀게 된 것에 대한 이러한 연극이 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화를 위해 '이들은 누구인가?'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약간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눈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10절에서 그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그의 약해진 눈보다 영적인 통찰력이 우선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야곱과 에서에게서 발견한 것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의 노쇠하고 눈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은 야곱의 속임수에 의한 것임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속임수가 없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서로에게 솔직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절에서 우리는 12절에서 발견한 관습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 경우 무릎은 넓적다리과 허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탄생에 대한 언급, 탄생에 대한 비유일 것입니다. 사실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고 종을 보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리브가를 다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종을 불러 그의 환도뼈에 손을 얹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이제 13절부터 20절까지에서 야곱은 이 입양 이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작용하는 것은 요셉이 그의 장남이 축복을 받는 데 많은 투자를 한 방식입니다. 이는 역시 관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를 반복해서 노래할 때, 형제자매 중 동생이 형보다 우선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25장에 나오는 출생 이야기에 따르면, 야곱이 에서의 출생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에서와 야곱에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이야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우리가 발견한 것은 13절에서 요셉이 그들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여 그의 오른쪽에 에브라임을 두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여 그의 왼쪽에 므낫세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야곱의 오른손과 함께 므낫세가 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쉽고 균형 잡힌 자세로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요셉이 여기에 손을 얹고 에브라임은 요셉의 오른쪽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두 번째로 작은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야곱이 손을 교차시켰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뺀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었으나 그는 어렸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므낫세의 머리에 왼손을 얹었습니다. 므낫세는 장자였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요셉을 축복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경과 선지자서 전체에서 요셉이 그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대리자로서 언급되는 것을 여러 번 발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서에서 볼 수 있듯이 땅을 분배할 시기에 관해서는 요셉을 대표하는 두 아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절과 16절에 나오는 이 축복을 발견합니다. 이제 요셉은 그의 아버지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손을 풀고 싶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며 “나는 내 아들을 안다. 그는 경험적으로든 다른 방식으로든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장자 므낫세도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동생이 지금보다 더 크게 되고, 그 후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그가 그 날 그들에게 축복하며 이르되, 이스라엘이 주의 이름으로 이 축복을 선포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쪽 이스라엘 주에서 매우 많고 강력한 두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형식화된 일종의 축복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10개 지파가 대표되는 북쪽 이스라엘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로 알려진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시므온과 유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49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따라서 북쪽에서는 에브라임이 매우 강력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선지자들에서는 실제로 이스라엘 열 지파 전체를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결론 구절인 21절과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네 조상의 땅으로 도로 데려가시리라 그리고 네 형제 위에 있는 자로 내가 너에게 능선을 주노라. 나는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들에게서 빼앗았습니다.

이제 그 땅의 능선은 세겜을 가리킨다. 세겜과 같은 말이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에는 요셉의 방부처리된 시신이 반환되면 그가 그곳에 장사될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보세요, 당신은 지금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네 가족이 그 땅에 있지 않지만 어느 날 너와 네 가족이 다시 그 땅에 있게 될 것이다. 야곱의 확신과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9장 1절부터 28절까지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그는 그의 열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작 두 구절에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듣기 위해 가족이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종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경 전체의 관점에서 이것에 대해 놀라운 점은 여기 49장에 슬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경에는 인식할 수 있는 세 개의 슬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49장 외에도

오경의 주요 이야기,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덩어리를 구성하는 결합이 있는 나머지 두 개의 실 또는 이음새가 있다는 점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묶여 있는 것. 배열은 내러티브, 시, 에필로그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광범위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여기 49장과 그 구절의 시가 있고, 29절부터 50장, 26절까지 시작하는 마지막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그럼 언급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4절, 그리고 신명기 31장 29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49장 1절의 언어는 이 두 구절에서도 발견됩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해 줄 수 있도록 모여라. 민수기 24장과 신명기 31장에 나오는 앞으로의 표현은 매우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언적 기대와 관련이 있으며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미래 지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경 전체. 후손을 향한 지향, 미래의 땅을 향한 지향, 그 땅의 축복.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을 부분적으로 실현하고 성취하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창세기에서 결론을 내릴 때 약속은 여전히 이집트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오경을 끝맺을 때 그들은 아직 공식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으며, 신명기에 이어지는 여호수아 1장에서 그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정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의 두 아내와 그들의 하녀인 노예들, 즉 첩이라 불리는 것에 대해 말하는 명령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인정받는 두 아내에게. 그래서 그는 레아에게서 태어난 르우벤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35장 27절에서 물의 사나움으로 묘사된 르우벤이 네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간 것, 즉 그 르우벤이 성관계를 가졌음을 기억합니다. 라헬의 여종 빌하와 함께한 것은 물론 근친상간과 반대의 큰 행위로 야곱에게 불명예를 돌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역시 레아에게서 태어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들이 마땅히 그래야 할 폭력적인 사람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 에 대한 그들의 폭력이 디나를 강간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는 7절에서 그들의 분노를 저주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야곱 중에서 흠으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흠으십니다. 여기 이 시적 표현에서 이스라엘은 같은 것을 가리킨다. 이제 시므온은 유다 지파에 흡수되되 여호수아 19장 1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는 땅을 따로 받지 못하되 그 지파는 48성읍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목초지, 35번, 2절과 7절. 그리고 이것이 이상적인 12, 즉 숫자 12가 유지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에게 에브라임과 아사도 있다면 너무 많은 것을 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13지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숫자 12를 유지하는 한 가지 방법은 레위가 토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8절에 보면 유다입니다. 이제 유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큰 왕조의 조상이 되고, 그것은 다윗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강력한 사자 새끼, 즉 매우 강하고 매우 공격적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는 사자 같이 웅크리기도 하고 눕기도 하며 암사자 같아서 감히 그를 깨뜨리느니라 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칠 매우 강하고 선도적인 인물입니다. 자, 10절은 통치자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보면 다윗의 약속, 다윗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집안을 택하심은 끝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할 것이다. 물론, 성경을 읽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인식하게 되면 다윗 왕의 문자 그대로 실제적인 이스라엘 통치는 중단됩니다. 비록 그의 족보와 유산, 그의 후손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이 다윗의 후손을 기대하면서 신약성서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밝히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족장들과 또한 이 왕족에게 주신 약속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상적인 왕이 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장로 중 하나인 요한이 하늘을 우러러보매 장로 중 하나 곧 전도자 요한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하더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느니라.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의 사자로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9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예상되는 유다의 자손입니다. 이제 10절과 그 결론에 관해서는 번역상의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역본에서 이것을 번역하려고 시도한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King James Version)은 49장 10절을 이런 식으로 번역합니다.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입법자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여기에 도전이 있습니다.

까지, 그리고 이것은 히브리어의 음역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를 발음하는 방법입니다. 실로까지, 실로까지, 실로가 오기까지, 백성의 집합이 그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므로 여기서 실로는 사람이나 장소를 지칭하며, 실로는 성막이 있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또 다른 방법은(내가 빨리 언급할 수 있는) 새 미국 표준 성경(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도 이러한 음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가 올 때까지.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성경(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 됩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고 히브리어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영어 표준역(English Standard Version)과 새 개정 표준역(New Revised Standard Version), 이 두 가지 버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내용을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읽는 방법입니다.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조공을 드릴 때까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전리품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적들에 대한 승리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조공이 그에게 이르고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때까지라 나는 영어 표준 버전을 읽고 있어요.

이제 이것은 정말 적합하며, 평행법의 후반부에서 명백히 예측되고 복종을 표현한 민족들의 순종을 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을 공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압도한 이 위대한 왕에게. 그래서 그들은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응답합니다. 그들은 제출 행위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응답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버전에서는 10절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내가 신국제역(New International Version)을 읽는데 그 안에 기록된 바를 주목하라. 홀 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 사람이 이를 받을 때까지라 하였느니라, c는 그것이 속한 홀과 통치자의 지팡이를 언급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한 사람을 의미할 것이며, 그렇다면 이것은 조공이나 실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구절에서 앞부분에서 발견한 것, 즉 선행을 의미할 것입니다. 홀(笏)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제 여기서 언급할 버전에서 번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활 번역. 또한 표준 성경인 기독교 표준 성경(CSB)에서도 이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단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속한 사람이 올 때까지 그것은 열방의 반응으로 인해 그의 통치권인 홀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유다와 이 왕족의 번영을 묘사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와 포도와 포도주와 젖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산물은 땅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우유와 함께 가축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스불론과 잇사갈을 지나 단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야곱이 짧은 기도를 하는 잠시 멈춤이 있습니다.

오 주님, 나는 당신의 구원을 바랍니다. 그런 다음 납달리의 갓과 아셀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는 22절에 나오는 두 번째로 유명한 인물인 요셉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입니다. 이제 그가 이전 장에 비추어 요셉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우리 마음 속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요셉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요, 샘 곁의 열매 맺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포도나무가 물과 물의 성장에 의해 어떻게 영양분을 얻을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벽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는 공격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하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이 공격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24절에 이는 야곱의 전능자시요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시니 네 아버지의 하나님 야곱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것은 개인적인 언약 관계를 말합니다. 이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야곱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와 공급을 받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25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며 전능자 샤다이로 말미암음이라.

샤다이(Shaddai)는 족장들이 하나님을 엘 샤다이(EI Shaddai)라고 부를 때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이름입니다. 17장,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엘 샤다이에 대한 매우 중요한 언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라헬에게서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27절에 베냐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결론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조금 뒤로 물러서서 26절을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고대 산의 축복보다 크도다. 물론 산과 오래된 언덕, 그 장수, 그 안정, 모두는 약속과 축복이 어떻게 장수할 것인지,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것인지, 어떻게 옮겨지지 않을 것인지를 말해 줍니다., 어떻게 도난 당할 수 없는지.

그러므로 이 모든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이 모든 축복이 왕자의 이마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요셉을 가리킨다. 자, 여기서 왕자를 언급할 때, 이것은 유다의 축복과 모순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홀(笏)을 갖게 될 것이다. 그는 왕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은 왕자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는 이집트에서 지도자의 위치, 즉 머리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가나안에 거주하는 유다 집안이 될 것이며, 그곳은 다윗에게 한 약속이 우선시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위해 그것을 명확히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는 중대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분명 배울 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12지파이다.

이는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각각 자기에게 합당한 축복을 주면서 축복할 때 그들에게 말한 내용이다.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중요한데, 모든 지파가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오경 전체에 걸쳐 장려되는 통일성이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지파, 수혜자들의 연합입니다.

이들은 모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요합니다. 누구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축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각 사람에게 적합한 축복을 줍니다. 즉, 각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땅의 분배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흥미로운 것은 28절에 있는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New International Version은 히브리어가 실제로 말하는 것을 명확하고 문자 그대로 번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완전한 히브리어 표현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축복이라는 단어가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 두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 번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 표준역은 히브리어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세 번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입니다.

이는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한 말이다. 그게 하나야. 그분은 각자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에게 합당한 축복이 있는 두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가지 축복입니다.

만약 내가 New International Version을 기반으로 한다면 나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번역할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게 하나야.

각 사람에게 적합한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두 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분은 먼저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적합한 축복을 줍니다.

그는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의 중요성을 분명히 밝히고 싶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까지 야곱의 죽음과 장사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점은 야곱이 요셉과 다른 아들들에게 그를 돌려보내 아브라함이 구입한 막벨라 굴에 묻히도록 명령하는 서두에서 언급된 가족 매장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23장 17절부터 19절에 이 굴과 헛 족속 에브론의 밭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족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레아가 있었습니다.

이제 라헬은 베들레헴 길가에 장사되었습니다. 이제 50장에서는 야곱과 가인의 장사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는 방부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50장에는 애도 기간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방부 처리에는 40일이 소요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를 위해 70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이로써 3절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애도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70일에 40일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야곱에게 큰 존경과 인정을 안겨준 애도의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돌려보내고 우리 가문의 땅에 장사하겠다고 맹세하라고 나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머지 구절들에 설명된 대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 읽을 때 그것은 꽤 화려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선단체가 있는 곳에는 여러 관리들이 있고 9절에 언급된 말 탄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닷이라는 곳에 왔는데, 그곳이 요단강 근처라는 것 외에는 그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크게 애도하는 기간, 애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가나안 사람들은 이 화려한 행사와 예식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1절에서 애굽 사람들이 장엄한 애도의 예를 지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부근의 이 곳을 애굽의 애도하는 아벨 미츠라임이라 일컫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을 열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탁월한 위치로 이끄는 것임을 기억한다면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지 가나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원거리와 원거리의 먼 애굽 사람들도 야곱의 탁월함을 인정함으로써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애굽의 종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을 보게 됩니다. 곧 그들의 역사에 애굽이 우리 아버지 야곱을 존경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한 번 하신 일을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셉의 마지막 날에 이르렀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죽은 후에는 에서처럼 형들에게 원한을 품지 않을 것이라고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모여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선 설화에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죽기 전에 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너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라. 형제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나쁘게 대한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물론 야곱의 이름과 그의 요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야곱이 이런 요청을 해도 형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요셉의 반응은 그가 울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울음은 애통함이었고, 그와 그의 형제들 사이에 회복된 관계가 그들의 눈에 의심되었기 때문에 탄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들은 실제로 몸을 굽혀 자신들이 노예임을 인정했습니다.

보세요, 그들은 목숨을 구걸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형제로 대우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물론이고 고백과 회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절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바와 같이 이것은 가족이 요셉에게 복종할 것이라고 예상한 요셉의 꿈 37장 7절과 9절에서 우리가 발견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 형제들이 자기 형제를 미워하여 그를 노예로 팔게 된 것은 바로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 즉 많은 생명을 구하는 일을 성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45장 7-8절입니다. 이 화해와 그런 맥락에서 가족과 그 너머의 모든 나라를 위한 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110세에 죽습니다. 이제 24절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느니라. 그러나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도우사 당신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을 앞으로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내 뼈를 이곳에서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출애굽기 13장 9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 24장 32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110세에 죽었고, 방부 처리된 후에 그는 이집트에서 관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가 애굽의 12지파와 요셉을 언급하는 출애굽기로 페이지를 넘기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나중에 이집트에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삼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 제도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모든 나라 사이의 중보자가 될 한 백성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특히 하나님과 그분이 열방을 위해 마련하신 마련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맡은 요셉에게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유다에게서 이상적이고 완전하며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성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족장들과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편파적인 일을 성취하고 실현하실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나라를 위해 모든 약속을 일괄적으로 가져오실 것입니다. 여기에는 오래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회개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의 죄와 여러분의 죄와 나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로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회개하고 그 축복을 받게 된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오셨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니라.

이것은 창세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Kenneth Mathews입니다. 이것은 25회기, 야곱의 축복, 요셉의 아들들, 야곱과 요셉의 죽음, 창세기 48-50장입니다.